

# 최근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 이재호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Tel: 044-414-1134)

## 차 례 ●●●

1. 베트남, 한국의 3대 수출 및 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
2.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변화 추이 분석
3.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구조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 최근 한국의 수출 및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수출 및 투자는 급증하여 한국의 3대 수출 및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
  - 2015년 1~5월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25% 증가해 베트남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3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최근 수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對베트남 투자는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
- ▶ 최근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증가는 전략적인 對베트남 투자로 형성된 생산네트워크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연대별로 섬유·의류·가죽 → 금속 → 전기·전자 형태로 변화함.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에서는 생산에 활용되는 자본재의 비중과 전기·전자 관련 품목의 비중이 증가함.
  - 양국간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네트워크 확대는 투자·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산업고도화에도 기여하면서 베트남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 반열에 올려놓는 역할을 함.
- ▶ 한·베 양국간에 형성된 '전략적 투자 →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다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양국은 한·베트남 FTA 발효를 통해 경제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1. 베트남, 한국의 3대 수출 및 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

■ 2015년 1~5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對베트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베트남이 한국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 최근 중국,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전통적인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이 감소 혹은 둔화되면서 2015년 1~5월 수출총액이 5.7% 감소함.
- 이러한 수출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여 2015년 1~5월 기준 베트남이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3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함.
-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對일본 수출은 전년대비 18.5% 감소하면서 약 14년 만에 3위 수출대상국 자리를 내어줌.

표 1. 한국의 국별·연도별 수출실적 추이(2010~15년 5월)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중국	116,838	34.8	134,323	0.1	145,869	8.6	145,288	-0.4	56,594	-2.7
2	미국	49,816	32.3	58,525	4.1	62,052	6.0	70,285	13.3	29,208	5.2
3	홍콩	25,294	28.7	32,606	5.3	27,756	-14.9	27,256	-1.8	11,738	9.2
4	베트남	9,652	35.0	15,946	18.4	21,088	32.2	22,352	6.0	11,280	24.3
5	일본	28,176	29.4	38,796	-2.2	34,662	-10.7	32,184	-7.2	11,103	-18.5
6	싱가포르	15,244	11.9	22,888	9.8	22,289	-2.6	23,750	6.6	6,368	-47.3
7	대만	14,830	56.1	14,815	-18.6	15,699	6.0	15,077	-4.0	5,277	-15.2
8	인도	11,435	42.7	11,922	-5.8	11,376	-4.6	12,782	12.4	5,093	-1.9
9	멕시코	8,846	24.0	9,042	-7.1	9,727	7.6	10,846	11.5	5,056	14.6
10	호주	6,642	26.7	9,250	13.3	9,563	3.4	10,283	7.5	4,973	22.8
총계		466,384	28.3	547,870	-1.3	559,632	2.1	572,665	2.3	222,068	-5.7

주: 증가율은 전년 혹은 전년동기 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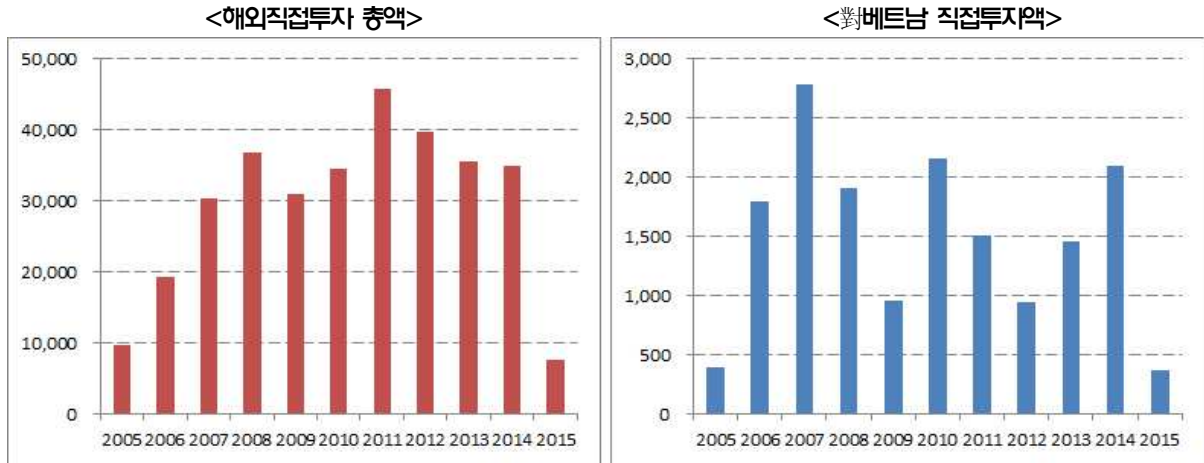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전반적으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對베트남 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해 베트남이 한국의 3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규모가 증가해 2011년 약 45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해왔음.
-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또한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07년 약 28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달성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등락해왔으나, 2012년 이후에는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임.

그림 1. 한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2005~15년 3월)

(단위: 백만 달러)



주: 신청액 기준 금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을 볼 때 베트남은 중국(홍콩 포함),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3위 투자대상국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5위 이내에 유일한 신흥국임.

표 2. 한국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실적(2015년 3월 말 기준 누적액)

(단위: 건,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신고기준		실투자기준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	미국	24,628	82,278	34,750	58,927
2	중국	50,578	66,051	91,658	49,503
3	홍콩	4,984	19,856	6,000	16,116
4	<b>베트남</b>	<b>9,431</b>	<b>19,287</b>	<b>22,530</b>	<b>11,473</b>
5	오스트레일리아	1,534	17,055	3,324	10,598
6	네덜란드	585	15,020	1,405	10,329
7	케이맨군도	654	14,142	895	8,538
8	캐나다	1,368	13,565	2,245	8,880
9	인도네시아	5,109	12,773	9,034	8,405
10	영국	832	12,385	1,070	10,156
	합계	138,378	407,725	231,688	286,53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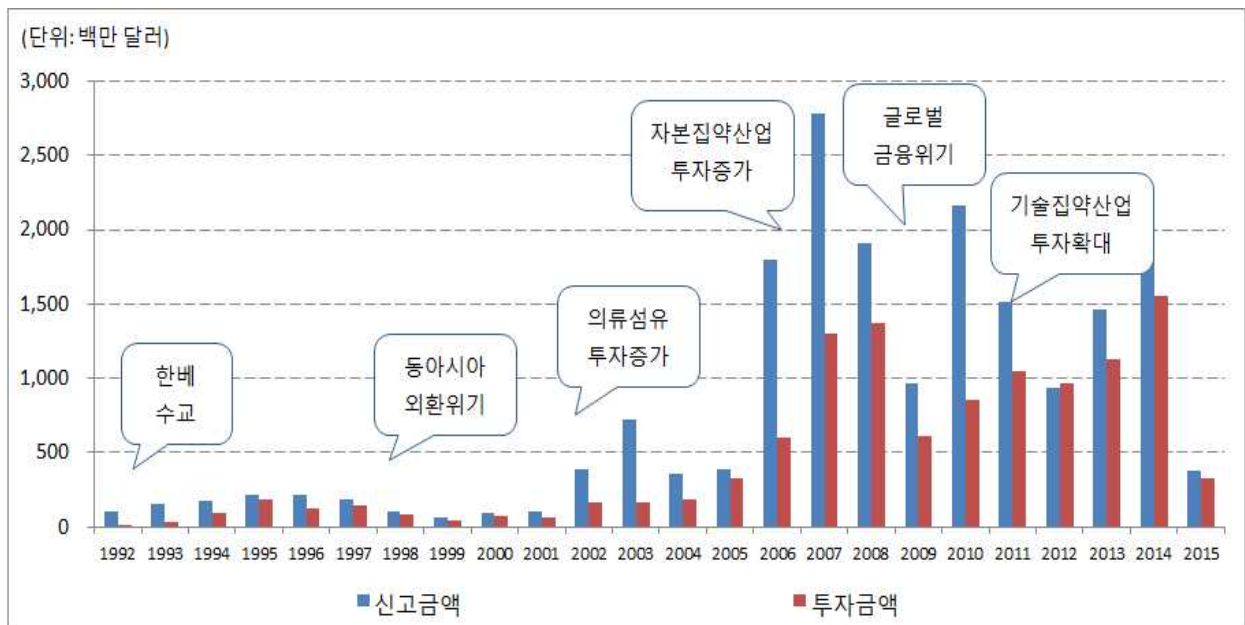
- 최근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한-베 양국간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향후 다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이에 한국과 베트남의 최근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분석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다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 2.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 변화 추이 분석

■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의류·섬유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자본 및 기술 집약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주를 이룸.

-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전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2건에 불과했으며, 베트남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92년 이후에 시작됨.
- 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의류·섬유 등 노동집약산업 부문의 투자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국내 기업들이 임금·물가 인상으로 인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베트남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한 것에 기인함.

그림 2. 한국의 연대별 대베트남 직접투자 추이(1992~2015년 3월)



주: 2015년은 1~3월 누계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베트남의 고도성장에 힘입은 건설·부동산 시장 성장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감안한 금속·철강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함.
-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 규모가 위축되었으나, 삼성전자는 이 시기에 베트남을 전략적인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채택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함.<sup>1)</sup>

1)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는 약 50억 달러 규모이나 각종 계열사와 협력사의 투자액까지 합한 투자규모는 약 1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LG전지도 베트남 하이퐁 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해외생산기지 중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및 백색가전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 업종별 직접투자는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투자 총액의 50%를 넘는 구조이며, 제조업 내 주요 투자업종은 섬유·의류·가죽 → 금속 → 전기·전자의 형태로 변화함.
- 업종별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7년을 전후로 부동산, 광업 등 자본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등락함.
- 제조업 내 업종별 구성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의류, 섬유, 가죽·가방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전체 제조업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였음.
- 2007년을 전후로 1차 금속, 전기장비 등 자본집약적인 업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등락은 있었으나 점차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넘어섬.
- 최근 전자부품, 전기장비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한국의 베트남 최대 투자 업종으로 부상함.

표 3. 한국의 베트남 업종별·제조업종별 직접투자 추이(2005~14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종별	제조업	184.9	300.0	621.5	696.3	313.9	467.1	529.4	528.3	756.5	975.3
	광업	111.0	187.5	251.0	215.8	147.3	157.9	169.3	169.6	140.2	228.4
	부동산 및 임대업	1.9	17.6	214.5	221.1	21.1	54.2	108.0	40.8	71.8	75.7
	기타	27.8	92.7	211.1	241.8	127.3	178.5	243.9	230.3	162.5	279.1
	총액	325.7	597.8	1,298.1	1,375.0	609.6	857.7	1,050.5	969.0	1,131.1	1,558.5
제조업종별	전자부품	4.7	14.9	11.7	30.5	18.6	83.8	61.7	91.8	189.9	276.4
	의류	37.7	66.3	65.3	73.2	31.1	64.7	86.0	75.3	105.4	114.2
	전기장비	2.1	27.6	111.0	117.3	13.2	15.4	29.9	19.8	107.2	110.5
	섬유	31.9	21.8	47.3	67.7	29.1	33.8	39.2	37.8	32.7	73.9
	비금속 광물제품	0.4	2.9	10.1	12.4	13.7	24.8	47.6	37.2	19.2	68.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2	1.7	2.1	2.5	2.0	2.5	11.5	13.6	29.2	50.7
	1차 금속	4.0	53.2	157.5	114.3	20.3	89.3	75.5	94.2	100.5	50.7
	가죽, 가방 및 신발	41.9	24.0	28.4	44.7	15.6	33.2	39.5	10.8	32.7	47.5
	기타 기계 및 장비	4.7	5.0	7.8	8.4	60.5	7.2	8.9	7.5	23.8	4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7	8.6	61.6	80.5	18.0	16.8	14.7	31.3	35.9	40.8
	기타	54.7	73.9	118.8	144.8	91.8	95.5	114.9	109.2	80.1	99.6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 한국과 베트남의 전기·전자 분야 생산네트워크 확대는 양국간 투자 및 교역 증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산업고도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도 담당함.
-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은 2014년 매출 약 266억 달러, 베트남 전체 GDP의 약 14%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2014년 휴대전화는 수출액 236억 달러 규모(베트남 수출 총액의 약 16% 차지)를 기록하면서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함.<sup>2)</sup>
-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4월 기준 베트남의 휴대전화 생산량은 약 7,580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9%에 달함.

2) 삼성전자 보도자료 및 베트남 통계청 통계를 활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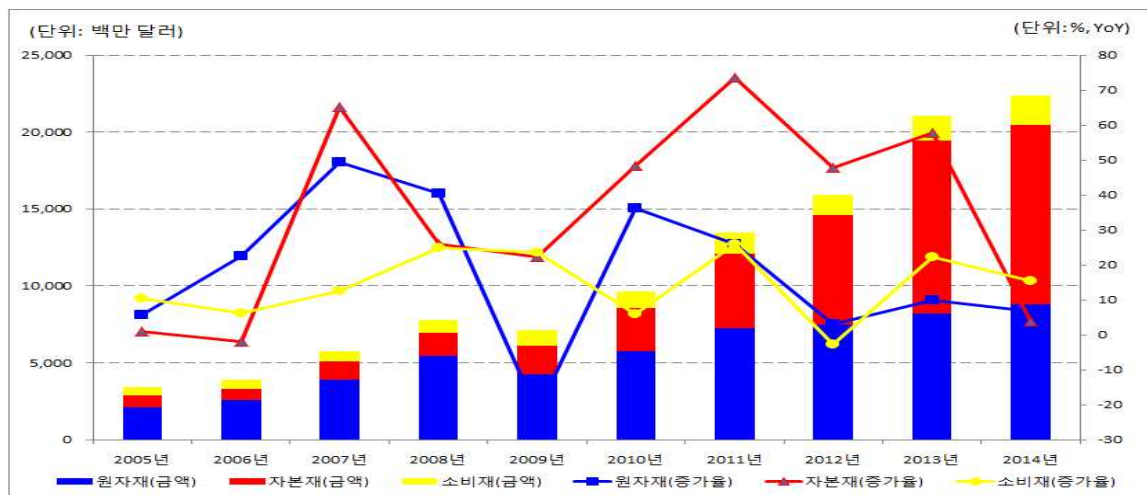
-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對베트남 투자는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베트남의 산업고도화를 견인하면서 베트남을 세계 최대 휴대전화 생산국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sup>3)</sup>

### 3.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구조 분석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에서 원자재와 소비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자본재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한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베트남 현지의 생산설비 수요 증가를 반영함.

- 지난 10년간(2005~14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약 34억 달러에서 224억 달러로 약 6.5배 증가함(연평균 증가율 20.6%).
- 동 기간(2005~14년) 한국의 對베트남 성질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원자재 15.3%, 소비재 12.9%에 그친 것에 비해 자본재는 연평균 3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2010~13년 간 자본재 수출 증가율이 크게 높았는데, 이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의 생산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현지생산에 활용되는 자본재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과 유관함.
- 또한 소비재 수출비중이 10% 미만인 점은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이 현지 소비시장보다는 생산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3. 한국의 對베트남 성질별 수출 추이 변화(2005~14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또한 의류·섬유 관련 품목이 점차 감소한 반면, 전자직접회로, 전화기 등 전자 관련 품목이 증가한 것이 특징임.

3) 이재호(2014), 「베트남,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본격 부상」, EMERiCs 주간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4.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 추이 변화(2005, 2010, 2014년)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2005년				2010년				2014년			
	Code	품목명	금액	비중	Code	품목명	금액	비중	Code	품목명	금액	비중
1	2710	석유·역청유	385.6	11.2	2710	석유·역청유	808.4	8.4	8542	전자집적회로	2,600.6	11.6
2	8525	라디오 TV 송신기	167.5	4.9	8517	전화기	743.1	7.7	8517	전화기	2,334.4	10.4
3	8704	화물자동차	163.4	4.8	7208	철강류	646.0	6.7	8534	인쇄회로	702.2	3.1
4	5903	방직직물	121.4	3.5	6006	편물류	395.7	4.1	8543	전기기기	675.3	3.0
5	6006	편물	114.2	3.3	8703	승용차	292.6	3.0	2710	석유·역청유	575.4	2.6
6	5407	합성직물	111.4	3.2	8704	화물자동차	238.5	2.5	7208	철강류	539.9	2.4
7	3901	에틸렌	81.3	2.4	3901	에틸렌	220.3	2.3	6006	편물류	520.5	2.3
8	6406	신발류	78.6	2.3	7219	스테인리스압연강	212.3	2.2	8479	기타기계류	475.6	2.1
9	4107	가죽	61.5	1.8	6004	편물류	186.4	1.9	5407	합성직물	458.9	2.1
10	3902	프로필렌	51.1	1.5	5407	합성직물	185.8	1.9	3907	폴리아세탈수지	340.2	1.5
	총계		3,431.7	100.0	총계		9,652.1	100.0	총계		22,351.7	100.0

주: HS-Code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최근 수년간 한국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증가와 수출의 성질 및 품목 구성 변화는 양국간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보여줌.

-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투자를 통한 베트남 현지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현지 생산에 활용되는 자본재와 전기·전자 부품 수출 증가로 이어짐.
- 앞으로도 삼성, LG 등 주요 전기·전자 기업은 물론 협력사들의 對베트남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전기·전자 분야의 생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전략적인 투자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은 향후 다른 신흥지역과의 경제협력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4. 결론 및 시사점

■ 휴대전화 및 백색가전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전기·전자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삼성전자, LG전자 등 완성품을 제작하는 주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투자진출 확대에 의한 수출 증가도 예상됨.
- 또한 향후 베트남 현지에서 부품 및 중간재 생산이 증가하면서 현지화, 기술이전 등 양국간 상생을 위한 긍정적인 협력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5월 한·베트남 FTA가 정식 서명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됨.

- 한·베트남 FTA는 투자와 수출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간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 다수 소비재 및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한 ‘親중소기업 FTA’, 기존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를 개선하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 등을 표방함.<sup>4)</sup>
- 한·베트남 FTA는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등과 함께 2015년 하반기 중에 국회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하반기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골든 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FTA 발효와 이행위원회를 통한 각종 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됨.

■ 2015년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여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對베트남 투자, 수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다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가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수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은 향후 양국간 경제관계 심화에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과정에서도 ‘전략적 투자 →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양자간 경제협력 추진은 단순히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로 (Win-Win)하는 상생형 경제협력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KIEP

## 참고문헌

### [언론자료]

- 『2015년 5월 수출입동향』. 2015. 산업통상자원부. (6월 1일)  
 삼성전자. 2015. 『삼성전자, 지속가능 경영을 말한다-[현지리포]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베트남복합단지』. Samsung Tomorrow(<http://www.samsungtomorrow.com>).

### [온라인 자료]

- 베트남통계청. <http://www.gso.gov.v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four beginning months of 2015-Monthly statistical information.” 2015. [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4289](http://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2&ItemID=14289)(accessed June 1st, 2015).  
 이재호. 2015. 『베트남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국으로 본격 부상』. EMERICs 주간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참조. (5월 5일)